

“주식 계좌이동만 해도 금리 더 드려요”

4% 단기특판에 신나는 투자자

정기예금보다 금리는 높으면서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던 투자자 A씨는 최근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보유 중인 주식 계좌를 다른 증권사로 옮기면 연 4%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에 가입시켜 준다는 것.

증권사	특판상품	가입자격	금리
KDB대우	특별한 매칭 RP	타사 계좌 옮기거나 추천 상품 가입	연 4%
	특별한 RP	첫 거래 고객	연 3.3%
삼성	특별 RP	추천 상품 가입	연 4~4.5%
	네오50플랜 특판	온투자신평로그램 통해 정기 상품 가입	연 4%
신한금융투자	특별 RP	생애 최초 계좌 개설	연 3%
	행복한 RP	신규 고객	연 4%

* 자료=각 회사

그는 3000만원 상당의 주식계좌를 옮긴 덕분에 3개월 만기, 연 4% 금리 특판상품에 3000만원을 넣을 수 있었다. A씨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2~3%대에 불과한 데 비해 증권사들이 내놓는 특판상품은 연 4%가 넘는 것이 꽤 있다”며 “여유 자금을 굴리는 데는 특판상품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찾는 투자자가 늘면서 시중 부동산을 잡기 위해 증권사들이 앞다투어 특판상품을 내놓고 있다.

특판상품은 다른 증권사 계좌를 옮겨오거나 추천 상품에 투자하거나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만기 3~6개월 단위로, 연 3~4.5% 금리를 제공하는 단기 고금리 상품이 주를 이룬다.

이들 상품은 큰 위험 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투자 기간도 짧아 위

증권사 ‘부동자금 잡기’ 사활건 경쟁

합한 투자를 꺼리는 최근 투자 트렌드와도 일치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증권사 역시 일부 상품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더라도 새로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특판상품 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다.

KDB대우증권은 추천 상품에 가입하거나 다른 증권사에서 유가증권을 옮겨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 4% 금리를 제공하는 ‘특별한 매칭 RP(환매조건부채권)’를 매달 500억원 한도로 판매 중인데 19일 현재 1600억원여치가 판매됐다.

매주 총 100억원 한도로 판매하는 ‘특별한 RP’ 역시 15주 연속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KDB대우증권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이라면 다른 증권사보다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

지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 3개월에 연 3.3% 금리를 제공한다. KDB대우증권은 지난해에도 유사한 특판상품을 판매했는데 50주 연속 매진이라는 진기록을 세우며 가입자 총 1만 7000명, 가입금액 1조 4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삼성증권도 추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만기, 연 4~4.5% 금리의 특판 RP를 판매 중이다. 삼성증권 추천 금융상품은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신탁(ELT),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상품에 가입하면 CMA

RP에 연 1.6%포인트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행사를 진행 중이다. 기본금리 연 2.4%에 추가 금리를 더해 연 4% 금리를 쟁길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연 3%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RP 판매도 19일부터 시작했다. 오는 7월 31일까지 판매되는 이상품은 91일물 특판 RP로 총 1000억원 한도에서 판매된다. 적용금리는 연 3%, 가입 한도는 1인당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내다. 가입자격은 생애 최초 계좌 개설 고객 또는 1년 이상 무거래 개인고객이다.

SK증권은 코스피 200지수가 60% 이상 폭락하지 않으면 연 4.45% 이상 금리를 지급하는 ELS 특판 상품을 지난해부터 3차례 걸쳐 판매했다. 1차 판매 시에는 50억원 모집에 605억원의 자금이 몰렸으며 2~3차 판매 당시에도 4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부증권은 연 4% 확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행복한 RP’와 ‘행복한 두 배 RP’를 연말까지 판매했다. 신규 고객이라면 다른 조건 없이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6개월 만기 RP에 가입할 수 있다. 이은아·김혜순 기자

삼성株 온기 그룹 전체로 퍼진다

전기·중공업·에스원 빼고 모두 상승...펀드 수익률도 꿈틀

19일 삼성그룹주 추가 움직임 (단위=원·%)

종목	종가	등락률
크레듀*	86,000	8.59
삼성증권	43,350	4.71
삼성엔지니어링	83,300	4.26
삼성화학	271,000	2.46
삼성생명	106,000	2.42
호텔신라	90,200	1.92
제일모직	67,500	1.81
삼성전자	1,448,000	1.4
삼성물산	73,000	1.39
삼성테크윈	58,600	1.03
삼성카드	39,950	0.88
제일기획	24,750	0.81
삼성SDI	153,500	0.66
삼성정밀화학	39,300	0
에스엘	80,000	-1.36
삼성전기	64,600	-1.52
삼성중공업	28,450	-1.9

*는 코스닥 상장사. 나머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등락률은 16일 종가 대비.

지배구조 개편이 시작될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승세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조시형·윤환진 기자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올랐다.

19일 삼성그룹 산하 17개 상장 계열사 가운데 13개 종목에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 8일 삼성SDS 상장(IPO) 발표 이후 두드러진 삼성그룹주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제일모직과 삼성테크윈이 각각 1.81%와 1.03% 상승하는 등 삼성그룹주 전체에 온기가 퍼진 모양새다.

삼성그룹 상장사 가운데 유일하게 코스닥시장에 있는 이러닝 전문 업체 크레듀가 이날도 8.59%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삼성증권(4.71%), 삼성엔지니어링(4.26%), 삼성화학(2.46%),

삼성생명(2.42%)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하지만 보험세를 보인 삼성정밀화학과 에스원(-1.36%), 삼성전기(-1.52%), 삼성중공업(-1.9%)은 이날 상승세에서 제외됐다.

앞서 삼성그룹이 지난해 가을부터 계열사 사업 재편과 함께 전자·금융 계열 부리를 위한 지분 정리 작업에 돌입하자 시장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관련 발표가 있을 때마다 해당 주식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핵심 축이 되는 종목 주가가 들쭉거림처럼 최근 움직임은 삼성그룹주 전체가 재평가받는 모양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급물살을 타면서 삼성그룹주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자 삼성그룹주 펀드 수익률 또한 꿈틀거리고 있다. 19일 펀드평가사 예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의 삼성그룹주 펀드의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은 지난 일주일 동안 3.97%의 수익률을 보였다. 삼성그룹 상장지수펀드(ETF) 중 규모가 가장 큰 삼성KODEX 삼성그룹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도 4.3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의문을 요구한 한 에널리스트는 “당장은 막대한 기대감으로 오르지만 오히려 주가가 빠져야

향후 유망 투자자산은 (단위=곳)

	북미	선진 유럽	한국	중국	아세안
부동산	3	7		1	1
PEF	9	6	2	1	2
전통에너지			1	1	
대체에너지	6	4		2	
SOC	4	6	2	2	1
헤지펀드	10				

“대체투자 美·유럽 가장 유망”

GAII 2014

운용자산(AUM) 규모가 1000조원에 달하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북미와 유럽지역 헤지펀드·사모펀드(PE)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매일경제신문 레이더M이 지난 13일 개최한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I 2014)에 참석한 주요 연기금과 공채회, 생명(손해)보험사 등 기관 21곳의 투자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의 운용자산을 모두 합하면 1000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1228조원)과 코스피 시가총액(1195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들 기관투자자가 대체투자에 배분하고 있는 자금이 1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100조원에 달하는 국내 기관투자자 자금이 국내외 대체투자시장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관투자가 21곳 설문 “투자 기간 5~7년 적절”

설문에 응답한 기관투자자들은 한결같이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 방식의 투자보다는 대체투자 부문의 전망이 밝을 것”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대체투자에 대한 평균 투자기간은 5~7년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대 수익률은 연 10% 수준이었다.

기관투자자들은 국내보다는 해외 대체투자시장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보다는 북미지역, 서유럽과 남유럽 등 선진국시장이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망 투자자산에 대해 지역과 자산별 5곳(복수응답)을 지목하는 질문에는 북미지역이 34곳, 선진 유럽이 29곳으로 나왔다. 그 뒤를 이어 중국이 8곳, 한국이 5곳, 아세안이 5곳 등으로 집계됐다. 자산별로는 사모투자가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간접투자(SOC) 15곳, 부동산 13곳, 대체에너지 12곳, 헤지펀드 10곳 등 순이었다.

한 연기금 투자담당자는 “북미 지역은 헤지펀드 역사도 길고 운용 역량이 우수해 시장 변동성과 관계 없이 절대수익을 거둬오는 만큼 중위험·중수익의 투자처로서 고려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재정 위기 이후 기업가치에 비해 저렴한 투자 매물이 많이 나온 선진 유럽 부동산과 사모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혁명’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셰일가스 등 대체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투자 기회가 발생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은아·서태욱 기자

▶레이더M(RaytheM.kr) 보도

◆설문에 참여한 기관(가나다순)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노동부 교보생명 교직원공제회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농협중앙회 동부화재 미래에셋생명 사할연금 삼성생명 삼성화재 신한생명 ING생명 알리안츠생명 우정사업본부 전문건설공제조합 코리아엔터테인먼트 한 국투자공사 한화생명 행정공제회

유가증권시장 공시

◇후성 = 울산공장 기초화합물 생산라인 작업 재개.
◇필룩스 = 100% 자회사인 필룩스전자유 한공사가 산동필룩스전자유한공사를 흡수 합병.
◇현대로템 = 909억원 규모 터기 투바사 S 동자 124량 부품공급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코스닥 공시

◇초록캠미디어 = CJ E&M 윌화드라마 ‘고교처세왕’ 프로그램 제작 계약 체결.
◇월드온강원 = 66억원 규모 제주시 고령 연료생산 및 판매시설 공급계약 체결.
◇인포반이 = 5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케이월드 = 계열사 피닉스홀딩스에 대한 115억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오늘의 일정

◇유상청약 = 엘앤에프
◇상호보검 = 한솔CSN-한솔로지스틱스
◇추가상장 = 코디에스 아이컴포넌트 선 창산업(BW) 와이저엔터테인먼트(유상)

BGF리테일 상장 첫날 34%↑

올해 첫 유가증권시장 새내기주 BGF리테일 시장가격이 공모가를 큰 폭으로 뛰어넘었다.

최근 상장한 종목들이 대체로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BGF리테일은 시초가 5만 7000원을 형성한 뒤 이보다 1800원(3.16%) 떨어진 5만 5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모가는 4만 1000원으로 시초가는 이보다 39%, 종가는 34.6% 높은 수준이다. 공모주 투자자가 이날 해당 가격에 매도했다면 그만큼 이익을 본 셈이다.

씨유(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올해 상반기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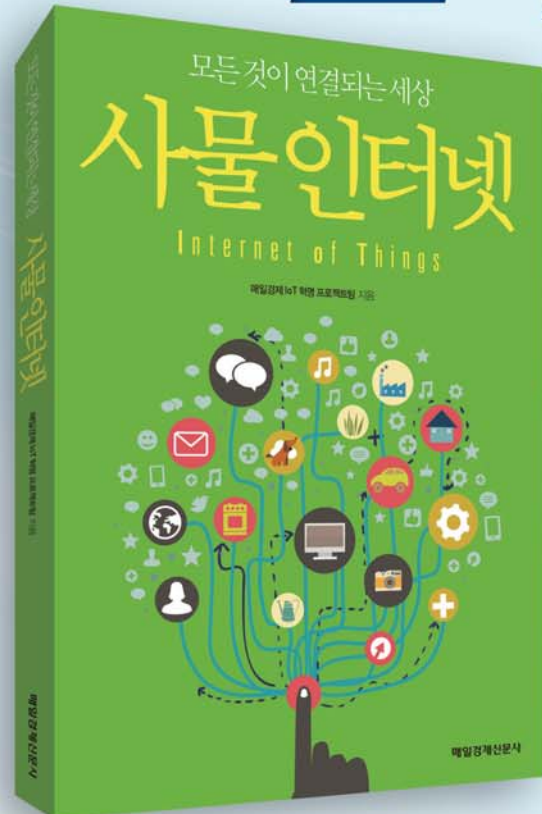
규모 기업공개(IPO) 종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실시간 일 반공모 청약에는 4조 5789억원 청 약증거금이 몰려 경쟁률이 181.3 대 1에 달했다. 현대증권과 메리츠 증권증권은 BGF리테일 목표주가를 각각 7만원과 6만원으로 제시하며 편의점시장 성숙에도 BGF리테일은 올해 꾸준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 1300억원, 1050억원을 기록했다.

박종필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유통업종 평균보다 BGF리테일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연 기자

디지털대전 최후의 승자가 가려진다

스마트폰 이후 한국의 성장동력은?



전 세계에 몰아치는 사물인터넷 혁명

이 책은 ‘사물인터넷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에서부터,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한 전망, 국가와 기업 및 개인이 새로운 미래 변화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치밀한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대기업 CEO와 임직원, 벤처기업인, 대학교수, 미래학자와 사회학자, 광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은 다른 어떤 설명보다 피부에 와 닿는 현장감을 선사한다.

Internet of Things



매일경제 IoT 혁명 프로젝트팀 지음 | 신국판 변형 308쪽 | 값 15,000원